

동계유스올림픽 전북 개최 가능성 'Up'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남북공동개최 추진과 함께 무주도 포함"

2024년 1월 19일부터... 도체육회 "동계 종목 활성화 큰 기여" 기대

전북도에서 27년만에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동계유스올림픽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2024년 펼쳐지는 강원도 동계유스(청소년)올림픽 관련 분산 개최를 통해 무주군 일원에서도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전날 열린 베이징동계올림픽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동계유스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추진 발언과 함께 무주를 언급하며 분산 개최의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유스올림픽, 즉 체육을 통해 한반도 대통합 및 변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일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회장의 공식 발표 뒤에는 무주 유치를 적극 강조했던 정강선 회장의 노력이 있었다.

실제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동계 유스올림픽 무주 유치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논의했다. 이 회장은 "동계유스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북에서도 앞장서달라"며 부탁했다. 동계 유스올림픽은 80개국 이상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올림픽과 규모가 거의 유사한 매머드급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2024년 1월 19일 개막해 2월2일까지 열린다. 무주에서 유스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될 경우 전북은 무려 지난 1997년 이후 27년만이다. 전북은 1997년 '젊음을 한 곳에, 세계를 품 안에'라는 표어를 내걸고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장을 통해 불모지나 다름 없던 국내 동계스포츠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빙상장과 스키장 등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서 동계스포츠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 대회 이후 전북에서는 올림픽 규모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볼 수 없었다. 정강선 회장은 "동계유스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전북 동계 종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전 세계인들의 눈과 열음의 축제를 무주에서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도형 선수. (사진=전주시민축구단 제공)

측면 공격수 보강으로 K3 승격 앞당긴다

전주시민축구단, 김도형 영입

전주시민축구단이 K3 승격을 위해 전력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전주시민축구단에 따르면 상주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하며 검증된 측면 공격수 김도형(31)을 영입했다. 김도형은 182cm 75kg의 날렵한 신체조건으로, 드리블 돌파와 적극적인 공간감투가 뛰어나다. 특히 김도형은 원 포워드와 중앙 공격수 포지션을 두루 소화하며, 강력한 슈팅 장점을 보였다. 양영철 감독은 "김도형은 공격 진영에서 해결능력이 뛰어나 우리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도형은 "올 시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 하겠다"며 "특히 이번 시즌에 팀이 꼭 K3에 승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도형은 지난 2018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해 충주 합맥, 상주 상무, 포항스틸러스 수원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K리그 통산 103경기 14득점 1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문체부, 체육시설업 종사자 4000명 고용 지원... 월 180만원

28일부터 지원 접수 받아 체육시설업 따른 등록시설업 골프·스키장업 등은 제외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의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4000명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도 지원하고, 지원액은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은 제외된다.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지난해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1만213개 업체, 종사자 1만2417명을 도왔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실내체육시설(약 6만1000개)의 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1%, 비수도권이 38.9%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태권도장 25.3% ▲체력단련장(헬스장) 17.3% ▲요가·필라테스장 10.0% ▲당구장 6.4%의 순서로 조사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업계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할인권(1차 3만 체육쿠폰), 방역소득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무주군, 청소년 드론 축구로 스포츠 레저문화 확산 | 청소년수련관에 축구장 마련... 내달부터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은 무주지역 청소년들에게 드론 축구를 활용한 스포츠 레저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세워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청소년수련관 지하 2층에 대한드론축구협회 정식 규격의 '유소년 드론 축구장'을 설치해 청소년들이 드론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유소년 드론 축구 공인구인 '스카이킥' 30대도 확보했다. 유소년 드론 축구장은 무주청소년수련관이 무주군으로부터 1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것으로 높이 3m, 가로 4m, 세로 8m 규모다. 이 드론 축구장은 튜브 형식으로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면 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무주청소년수련관은 유소년 드론 축구장이 설치됨으로써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은 물론 오는 3월부터 진행되는 드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드론을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무주청소년수련관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드론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정오까지 2시간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드론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 희망 청소년들은 무주 청소년수련관(063-324-4240~3)에 문의하면 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김미경 팀장은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향후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 참가를 목표로 청소년 드론 축구단을 결성해 건전한 스포츠 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과 무주청소년수련관은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 무주 유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드론 축구에 대한 자연 확대를 꿈꾸고 있다. 드론 축구는 공처럼 둥근 스카이크 드론을 조종해 공중에 매달린 골대에 드론을 집어넣어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2명의 공격수와 3명의 수비가 한 팀을 이뤄 3분씩 3세트를 진행해 3전 2선승제로 승패를 가린다. /무주=전문선기자



지난 16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 한국 최민정이 역주하고 있다.

출전이 무산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빙상연맹은 베이징동계올림픽 후 대표팀 지도자들이 김지유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판단하면 대표팀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김지유가 대표팀에 복귀하더라도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좌절로 가진 불만과 좌절감을 풀어주는 것이 숙제다.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라고 꼽는다.

한국 쇼트트랙은 감독 없이 전임 코치 체제로 이번 올림픽을 치렀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대표팀 지도자 선발 기준을 강화했는데 감독 공개 채용에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한 인물을 못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겠지만, 국민으로부터 질타 받는 운영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선발 기준 등 지도자 채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무주청소년수련관 지하 2층에 설치된 유소년 드론 축구장. (사진=무주군청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